

# 무안공항, 미주노선 취항 추진

### 제주항공, 5월 中 산야·7월 日 후쿠오카 신규 취항

### 올 이용객 100만명 예상... 서남권 거점공항 위상 정립

제주항공이 무안공항에서 오는 5월 중국 산야, 7월 일본 후쿠오카를 신규 취항할 계획이다. 국제노선과 이용객이 계속 늘어나면서 올해 이용객 100만명 돌파가 무안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노선을 계속 늘려가면서 2021년 광주공항 국내선이 무안공항으로 통합되면 서남권 거점공항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남도는 전망하고 있다. 다만 군공항 이전 문제, 전북 새만금공항 추진 등의 변수도 있어 광주-전남의 공동보조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김영록 전남지사와 이석주(주)제주항공 대표이사가 만나 무안국제공항 국제노선 다변화 및 관광객 유치와 지역 우수인재 채용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만남에서 이 대표는 "무안국제공항의 제주항공 취항 노선이 성공적이라고 보며, 앞으로도 중국-미주-동남아 등 국제노선 신규 취항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표명했다. 이어 "무안국제공항이 제주항공의 허브공항이 되도록 정비 및 안전관리 항공

운영베이스를 구축하겠다"며 "전남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과 승무원이 편히 쉬 수 있도록 에어텔 신축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해 전라남도, 시군, 한국관광공사, 한국공항공사, 항공사 등이 협업체를 구성해 관광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 지사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국제노선 신규 취항에 행정·재정을 하는 등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우수한 지역 인재 채용에도 적극 앞장설 것"을 당부했다. 이어 "미래비전과 가치가 있는 전남에 적극 투자해달라"며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도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고 강조했다. 제주항공은 무안공항을 거점으로 꾸준

히 국제노선을 늘려가고 있는 대표적인 우군이다. 지난해 4월 오사카를 시작으로, 다낭과 방콕, 타이베이, 세부와 코타키나발루 등 6개 노선에 신규 취항한 제주항공은 올해 도쿄, 마카오, 블라디보스토크 등 3개 노선에 신규 취항하며 무안기점 국제노선을 9개로 늘렸다. 중국 산야와 일본 후쿠오카가 추가되면 제주항공은 무안공항에서 11개의 국제선을 운항하게 된다. 무안공항 기점 국제선이 연이어 취항하면서 무안을 통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숫자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12개 국제노선이 취항 중인 무안공항의 1분기 이용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3%가 늘어난 24만9000명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박근혜 형집행정지 금주 결론 날 듯

### 의료진, 구치소 방문 예정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상고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형집행정지 신청이 건강상 심각한 문제를 사유로 내세우는 데다가 정치권에서도 석방론과 관련한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상황이라 검찰이 신속하게 결론을 낼 것인바 계보조계의 대대적인 시각이다. 21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측과 일정 조율을 해 이번 주 초 서울구치소로 임검(臨檢·현장조사)을 나간다. 박 전 대통령 측이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인한 불에 데인 것 같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주

장하고 있기 때문에 디스크 증세를 확인할 수 있는 의료진을 대동한다. 의료진은 직접 진찰과 더불어 구치소 내 의료 기록 등을 검토하게 된다. 임검 절차가 끝나면 검찰은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열어 형집행정지 사유가 있는지를 면밀히 살피게 된다. 심의위는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사건 담당 주임검사 등 3명의 검찰 내부 위원과 의사가 포함된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심의위는 출석 위원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형집행정지 여부를 의결하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심의 결과를 토대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다만, 검찰은 대체로 심의위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전남도 1분기 외국인 직접투자 4500만달러

산업통상자원부의 '2019년 1분기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에서 전남이 외국인 직접투자(FDI) 신고 및 도착 실적에서 비수출권 14개 시도 가운데 각각 3위와 4위를 기록했다. 전남지역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신고금액은 4500만 달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773만 달러)보다 대폭 늘어난 규모다. 같은 기간 외국인직접투자 도착금액은 2232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2960만 달러) 보다 다소 줄었다. 외국기업의 주요 투자 업종은 정밀화학, 수산물 가공 분야다. 주요 국가는 이탈리아, 중국 등이다. 세계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가 하락 추세인데다, 외부기업 조세감면제가 대폭 축소되는 등의 영향으로 국가 전체로 보면 2019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실적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신고기준으로 35.7%가 줄고, 도착기준으로도 15.9%가 줄어든 점

을 감안하면 이 같은 실적은 상당한 성과라는 것이 전남도의 설명이다. 전남도는 지역 연관산업에 파급효과가 크고 대규모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국가별 맞춤형 해외투자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프랑스 전기차, 한일합작 정밀화학, 한중합작 풍력터빈 기업 등의 유치가 집중하고 있다. 투자유치가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어 하반기 가시적 성과가 기대된다. 선양규 전남도 투자유치과장은 "관광개발사업 역시 대규모 고용을 창출하는 산업"이라며 "최근 천사대교 개통,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연속연도도 사업 확정, 무안공항 국제노선 확대 등으로 아름다운 전남선에 대한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제적 해양관광단지 투자유치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김홍일 전 의원 20일 별세

### 'DJ 아들이자 정치적 동지' 향년 71세... 5·18모지 안장 예정



노명민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2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김홍일 전 의원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인 김홍일 전 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향년 71세로 별세했다. 1948년 전남 목포에서 태어난 김 전 의원은 민주화를 향한 아버지의 길을 따르며 각종 풍파를 겪었다. 김 전 의원은 박정희 정권의 독재에 맞서다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의 배후로 지목돼 고초를 겪었으며,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당시에는 공안당국으로부터 모진 고문을 당했다. 김 전 의원은 고문 도중 허위 자백이 두려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목을 다치기도 했다. 이때의 고문 후유증은 평생 김 전 의원을 괴롭혔고, 결국 파킨슨병으로 이어져 고된 투병과 별세의 원인이 됐다. 김 전 의원의 1996년 15대 총선에서는 전남 목포·신안갑 새정치국민회의 후보로 당선돼 국회에 첫 입성했다. 2000년 16대 총선에선 목포에서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재선에 성공했고, 2004년 17대 총선에서는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돼 3선 고지에 올랐다. 김 전 의원의 장례는 나흘간 가족장으로 치러진다. 김 전 의원측 관계자는 21일 "유가족이 상의해 김 전 의원 장례를 '4일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했다"며 "김 전 의원은 광주 5·18 국립묘지에 모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이 별세한 20일로부터 빈소가 차려진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은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김 전 의원의 입관식은 22일 치러진다. 23일 오전 6시에는 함세웅 신부가 집전하는 장례미사를 봉헌한 뒤 7시 발인식을 한다. 장지는 광주 5·18국립묘지에 예정돼 있지만 국가보훈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 될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으로 모진 고문을 당한 김 전 의원의 5·18 관련자로 인정 받았다. /임동욱 기자 tuim@

# 道-관광공, '봄 여행주간' 특화프로그램 운영

전남도와 한국관광공사는 '2019 봄 여행주간'을 맞아 오는 27일부터 5월 12일까지 '남도의 봄, 피크닉 여행'과 '레트로 여행'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남도의 봄, 피크닉 여행'은 순천만국가정원에서 봄꽃 여행을 즐기고, 박승희 자연음식연구가가 제안한 꽃으로 만든 '꽃밥 도시락 & 꽃차'를 만들어 즐기는 피크닉 여행으로 구성됐다. 방문객과 함께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레트로 여행'은 목포 서산동 연희네 슈퍼와 근대역사문화관 일원에서 펼쳐진다. 연희네 의상실(근대 의상 및 소품대여), 연희네 사진관(사진촬영 및 인화), 연희네 음악다방, 연희네 도시락 체험 등 근대 관

광자원을 연계하고 1980년대 당시 소품을 활용한 '1987 레트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목포만의 색다른 여행 프로그램이다. 전남도는 또 봄 여행주간 동안 열리는 시군 대표축제인 담양 대나무축제, 함평 나비축제, 보성 다향대축제, 완도 청산도 슬로걷기 행사 등 다양한 축제와 공연 등을 소개하고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김명원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은 "봄 여행주간 동안 사군별로 개최하는 각종 축제와 행사를 여행주간 특화프로그램과 연계해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도 홍보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목포중앙병원 '심뇌혈관질환센터' 개소

### 예방·재활 등 4개 전문센터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자에 대해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전남 심뇌혈관질환센터가 지난 19일 목포중앙병원에 개소했다. '심뇌혈관질환센터' 개소식은 김영록 전남지사, 김중식 목포시장, 최관호 전남경찰청장, 박지원·윤소하 국회의원, 의료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금성심근경색, 뇌졸중 및 고혈압·당뇨병 등 심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전체 사망 원인의 24.3%를 차지하고 있다. 심뇌혈관질환 진료비와 사회경제적 비용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보건소 중심의 고혈압당뇨병 관리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난 10년간 전국에 14개 심뇌혈관질환센터가 지정돼 전문치료와 조기 재활, 지역사회 예방관리사업 거점병원으로 육성하고 있다. 앞으로 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는 심혈관센터, 뇌혈관센터, 심뇌혈재센터, 예방관리센터, 4개의 전문센터를 운영한다. 심뇌혈관질환 발생 예방, 조기 진단, 응급의료, 재활 등 전문적 진료체계를 구축, 24시간 365일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

# 전남도립대-6개 지자체, 평생직업교육 업무 협약

### 관·학 거버넌스 구축 등

전남도립대가 지난 19일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화순군, 영광군, 장성군과 평생직업교육 혁신을 위한 관·학 거버넌스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자체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김대중 총장과 최형식 담양군수, 유근기 곡성군수, 구충근 화순군수, 김준성 영광군수, 최형희 구례 부군수, 김영권 장성 부군수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전남도립대와 6개 지자체가 평생직업교육 혁신과 상호 발전을 위한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해 ▲지역발전형

평생직업교육 운영 ▲산·학·관 거버넌스 구축 ▲지역 정주 여건 조성 및 취업 연계 지원 등 지역 수요에 맞는 혁신교육 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대중 총장은 "대학 인근 지자체와의 협력은 지역 인재 양성과 지역민을 위한 평생직업교육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도립대가 평생직업교육 거점센터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립대는 2019년부터 3년 동안 교육부의 혁신지원사업 '자율협약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후진혁신도형 지원사업'에도 참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삼니다

전국 임야/단독섬

지분물건환영.010-6834-7400

교 환 전문

빌딩/토지/임야 등 모든 부동산

정확/신속처리.010-3605-5000

##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 팬션·전원주택지

- 무안군 해례면 바다 150m거리 대지 790㎡ 3800만원
-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추월산 가는 길 2268㎡ 1억5800
- 신안 자연온천 해수욕장 접 1654㎡ 별장 등 적합한 분할지는 평당65만원
- 영광 백수해안도로 칠산바다 전망 좋은 1130㎡ 1억2천

### 투자·매도·교환

- 남구 방림동 주거지역 1420㎡ 다세대·원룸 적합 16억4천
- 곡성 임면 매실밭 13000㎡자연인생활적합 신고는 2억5천 매도 1억2천
- 월산동 월산아파트 부근 1084㎡ 원룸·다세대 적합 8억7천
- 영암 삼호읍 용당리 공업지역 6019㎡ 은행 2억3천 매도 4억2천
- 운암동 대형아파트 지하 205㎡ 사무실 등 다용도 교환가능 1억8천
- 서구 아파트단지 반지하노래방 265㎡ 룸7 교환가능 임대중임 4억7천
- 강진 성전면 월출산 가는 길 땅 808㎡ 커피숍·식당 적합 3억4천
- 담양 금성면 추월산 가는 길 땅 808㎡ 커피숍·식당 적합 3억4천

### 상가건물

- 함평 염산면 바다 접 땅 1280㎡ 건평 183㎡ 식당·노래방 3억5천
- 중창로 4가방 261㎡ 건물 1128㎡ 은행 11억 전세 1억8천 월 1000. 25억
- 서석동 4층상가 조대 앞 땅 405㎡ 건평 919㎡ 보종금 6천 월 280 임대 중 12억
- 백운동로터리와 대성로터리 사이 대로변 땅 258㎡ 건물 265㎡ 8억
- 월산동 무진중 부근 버스도 접 토지 155㎡ 건물 4층 263㎡ 4억천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 특급물건

- 나주시 남평읍 드물길면 6111㎡ 지구단위 해 아파트 적합 220억
- 무안군 운남면 바다인접 계획관리지역 11607㎡ 급매도 4억5천
- 장흥군 수문해수욕장 2346㎡ 팬션·노인·요양시설 등 적합 -일부는 광주 원룸부지와 교환 가능 4억 7천
- 북구 용두동 6차선전 4899㎡ 물류창고 등 다용도 적합 45억
- 순천 낙안민속마을 저수지 옆 펜션 대지 2180㎡ 펜션3동 372㎡ 8억
- 북구 북동 금남로 5가역 대로접 중심상업지 364㎡ 사옥 등 적합 12억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앞문앞

## 혼란기 시대 부동산 투자전략 무료 특강

시기가 변하면 투자전략도 변해야 한다.

### 혼란기시대에 부동산 투자에 정곡을 찌르는 알찬강의!

2019년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효과적인 투자전략을 찾을 수 있는 특별강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부동산 전망과 재-테크 성공 전략**

**강사 : 정영수 경영학박사 (부동산마케팅 전공)**

- 한국부동산정보연구소장, (사)대한부동산학회 광주-전남지부장
- 前 전남대 경영연구소 전임연구원
- 한국생산성본부(KPC) 위촉교수, 공무원연수원 등 초청강의

- 일 시 | 2019년 4월 23(화) 14시
- 장 소 | 김대중컨벤션 3층 강연장(델리하우스 3층 308호)
- 후 원 | 굿옥션/리안채
- 특 전 | 1. 추첨선물 -정관장홍삼, 건강쌀  
2. 참가자전원 - 기념선물, 굿옥션이용권2개월(7만원)

\*선착순 70명 전화접수 마감

**☎ 062)945-8500 010-5613-1808**